

주부 정선혜(40·가명)씨는 평소보다 생리기간이 일주일 이상 길고 출혈도 많은데다 끊어질 듯 배 아픈 통증이 잦아지길 않아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자궁근종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접했다. 더욱이 근종 크기가 커 자궁을 들어내야 한다는 진단 결과는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 정씨를 더욱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했다. 정씨의 경우 자궁적출 말고 또 자궁근종 치료법은 없는 걸까?  
글=행복플러스 문금유 기자 bidany@chosun.com 사진=행복플러스 이구희 객원기자 pota92@nate.com 도움말=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병원 영상의학과 윤상욱 교수·산부인과 성석주 교수

# 자궁근종 치료법이 궁금하다



MRI 유도하 고집적 초음파 치료기 '엑사블레이트 2000'은 마취와 입원 없이, 또 몸에 칼을 대지 않고도 자궁근종을 치료해 '꿈의' 자궁근종 치료기로 불린다. 주부 조혜민씨에게 엑사블레이트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윤상욱 교수.

가임기 여성의 20~50%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 생명의 신비를 잉태하는 자궁은 여성의 힘의 근원이다. 그 자궁이 다양한 내·외부 원인에 의해 시름시름 앓고 있다. 자궁근종(Uterine fibroid)은 가임기 여성의 20~50%에서 발생할 만큼 가장 흔한 양성 종양. 자궁 벽 내의 근육조직에서 단일 종양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때론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종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궁근종의 정확

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가 에스트로겐을 많이 생산하는 임신기에 근종이 더 크게 잘 자라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는 폐경기에 근종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이를 반증하는 셈.

서구화된 식생활로 자궁근종 환자도 증가세

비만이 자궁근종의 원인  
생리통·빈혈 증상 따라 치료 달라

마취 없이 초음파로 종양 제거  
자궁 적출 우려 없어 큰 호응

자궁근종을 앓고 있는 여성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차병원을 찾은 여성은 2001년에 비해 20~30대에서 53%, 40대에서 67%가량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차병원 산부인과 성석주 교수는 "예전에 비해 자궁근종에 대한 정보가 많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증상이 의심되면 여성 자신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또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과체중 및 비만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관계 있다"면서 "비만으로 인해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자궁근종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여성들의 사회생활로 인해 결혼과 임신이 늦어지는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크기나 증상 따라 달라지는 자궁근종 치료법  
자궁근종은 그 크기나 증상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근종 크기가 작고 생리통과 빈혈 증상의 유무, 생리 양의 정도, 주위 장기를 압박하는 증상이 없으며 임신 계획이 없는 경우면 대부분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도 한다. 호르몬과 배란 영향으로 물혹 정도는 커졌다가 쪼그라들기도 하기 때문. 그렇지 않다면 호르몬을 투여해 근종을 축소시키거나 개복·복강경을 이용해 근종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개인차는 있지만 자궁근종 크기가 크거나 너무 많아 더 이상 자궁을 보존할 수 없다면 자궁을 떼어내는 자궁적출술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로써 자궁근종은 더 이상 재발하지 않지만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정서적 상실감이 크다. 자궁에 연결된 동맥에 혈액공급을 차단해 근종을 괴사시키는 자궁동맥색전술도 유용하다. 이는 자궁적출술이나 근종제거술에 비해 입원기간이 하루 정도로 짧지만 방사선 노출위험과 조기 폐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취·입원 없이 자궁근종 없애는 'MRI 연계한 고집적 초음파 치료'  
여성성의 근원인 자궁을 손상하지 않고 근종을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 분당 차병원과 강남 차병원이 지난 2006년 도입 자궁근종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엑사블레이트(ExAblate) 2000'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엑사블레이트 2000'은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연동해 근종 위치와 크기·특성 등을 정밀 파악한 후 고집적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제거하고 확인까지 하는 최첨단 의료장비다. 시술 소요 시간은 3~4시간. 수술시 마취할 필요가 없어 수술 동안 환자와 의사간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입원할 필요도 없이 수술 후 2시간가량 휴식한 후 귀가해 다음날부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 '꿈의' 치료법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자궁 적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복수술을 망설이고 있거나 자궁 상실을 우려했던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분당차병원 영상의학과 윤상욱 교수는 "자궁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난소 기능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젊은 여성은 임신도 할 수 있으며, 중년의 경우 조기 폐경을 유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자궁근종 치료법"이라고 소개한다. 윤 교수는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160차례 이상 엑사블레이트 수술을 적용했다. "환자의 90% 이상이 증상이 완화된거나 완치되는 등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면서 "제왕절개 상처가 있는 경우 엑사블레이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상처패치를 붙여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냈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차병원은 일본의 예를 바탕으로 근종뿐 아니라 유방암, 골 전이 암, 전립선암 등의 질환에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엑사블레이트 2000은 국내에선 강남 차병원과 분당 차병원에서만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나 무좀 싫어 입TT  
아빠 양말서 옮았나봐

## 가족끼리 병도 공유한다고?

수건, 빗, 손톱깎이... 흔히 가족들이 공유하는 물건들이다. 이를 통해 생각지 않던 병균을 공유하는 비극(?)을 낳을 수 있다. 가족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겨울은 오히려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면역력 약한 아이들은 전염성 질환에 속수무책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엄마의 관심과 관리가 절실하다.

**Blacklist 1. 발수건·손톱깎이 무좀균의 온상**  
무좀의 원인 곰팡이균, 피부에 번식되면 발톱과 손톱에까지 번져 손·발톱 무좀으로도 발전한다. 무좀의 주요 은신처는 발수건과 손톱깎이, 양말. 화장실 슬리퍼를 통해 아빠의 무좀이 엄마에게 전염되기도 하고 손톱깎이를 잘못 써 상처 나면 손톱무좀을 아이들에게 옮기기도 한다. 평소 습진이 잘 낫지 않는 주부라면 무좀균을 의심해 볼 것. 때문에 무좀 환자가 있다면 해당 물건을 따로 쓰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병원 처방을 받아 먹는 약과 연고를 병행할 것. 일반 무좀의 치료는 2~3주, 손·발톱 무좀은 2~3개월 걸린다.

**Blacklist 2. 면도기·칫솔 통해 B형 간염!**



가족 중에 B형 간염환자가 있다면 상처에 특히 조심한다. 칫솔, 면도기, 귀개, 손톱깎이를 쓰다 상처가 나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특히 부자, 형제끼리 같은 면도기를 쓴다면 간염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면도기와 칫솔은 따로 쓰고 칫솔은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삶으면 소독도 되고 휘어진 모도 곧게 펴진다.

**Blacklist 3. 사마귀는 손을 통해!**



사마귀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피부 감염증으로 면역이 약할 때 잘 생긴다. 손이나 손톱, 발바닥, 얼굴에 주로 생긴다. 데 아이들은 사마귀를 만지고 뜯기 쉬워 전염 속도가 빠르다. 외출 후엔 꼭 비누로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할 것. 물사마귀도 흔해진 전염성이 높다. 단 물사마귀는 사마귀와 달리 어른에게 잘 전염되지 않는다. 사마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나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병변 부위를 제거하는 피부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간혹 집에서 부모가 직접 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문에 균이 퍼질 수도 있으니 삼갈 것.

**Blacklist 4. 두부백선 옮기는 빗**

온 가족 사용하는 머리빗도 상처 있는 두피에 곰팡이를 옮길 수 있다. 머리의 무좀균인 두부백선이 그것. 비듬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아이들에게 잘 생긴다. 머리에 빗이 많은 사람이라면 두부백선균도 함께 갖고 있으니 빗은 따로 사용하도록 한다. 아이들끼리 머리를 비비거나 자주 만지는 것도 전염의 원인. 만약 두부백선이 발견됐다면 병원을 방문해 먹는 약과 연고로 2~3개월 치료받아야 한다.

글=행복플러스 박지현 객원기자 true100@empal.com  
도움말=WE클리닉 박정수&조애경 원장 사진=조선일보 DB



기획 광고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0607-종-419호



## 우리아이 키 한방으로 치료한다

박기원 원장(한의학박사/의학박사)

서정한의원 02-515-8585 www.seojung.com

**키도 걱정 작아도 걱정**

과거엔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잘 크다' '살이 키로 간다'가 가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감수록 다른 아이들과 키 차가 벌어지면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다. 키가 작아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작은 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엔 '우리 아이 맨 앞에 서요' '평균 키보다 10cm 이상 작아요'라고 걱정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는 부모님들이 많아진다. 또 요즘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 체위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누구나 크지는 않다. 심각한 키의 양극화로 키가 작은 학생들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키가 작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질환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단지 키가 작다는 이유 하나로 어린 나이에 정장식 갈등이나 도래로부터의 소외감에 시달린다면 이는 육체적 질병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다.

**비만 어린이 사춘기 빨라 키 작다**

과거에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장병 등 비만 관련 질병이 40~50대에 주로 발생했으나 요즘에는 소아·청소년기에도 이런 질환병증이 빈발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비만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이다. 비만이 사춘기 조속중에 영향을 주는 주된 이유는 증가된 두 가지이다. 첫째는 체지방률이 높아지면 성장호르몬에 대한 호르몬 내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체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아디포카인 등의 물질들이 사춘기 중추에 작용해 사춘기 발현을 유도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비만한 아이의 키 성장 속도는 '토끼와 거북이'의 토끼처럼 거북

이보다 빨리 자라다가 결국 거북이한테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만은 체지방의 증가로 인하여 몸을 많이 흘리게 되고 몸을 통해 무기질이 빠져나가기 되고 과도한 심 부적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려 학습장애를 유발시키게 되고, 운동을 싫어하니 폐활량이 떨어져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에 비해 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결국 학습능력이 저하된다.

소아비만은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 임신 말기 엄마의 체중 조절과 출생 후의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 이유식을 너무 빨리 먹이거나 엄마의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간 고열량의 식단을 짜면 비만을 부른다.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먹고 싶은 것 시켜서 먹여라'든지 자녀의 식생활 습관에 무관심하면, 먹물거리가 발달된 요즘 세상에서 아이들은 쉽게 살이 쪼들다. 이처럼 소아들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영양과잉과 운동 부족이 소아비만의 큰 원인이지만 많은 부분들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30kg, 남학생의 경우에는 45kg정도 되면 사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가슴에 멍울이 생기는 등 성징이 나타나거나 30kg이상이 되면 검사를 통해 아이의 성장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방요법은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처방되어진다.

서정한의원에서는 현재 평균 키 이상이 되더라도 치료와는 상관없이 성장 정밀검사를 받아보아야 하고, 이 검사결과를 통해 실제 나이보다 빨리 크는 조속중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성장장애의 동반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

성장장애로 내원하는 아이들의 경우 소화기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최근엔 알레르기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성장 치료 시 상태에 맞는 맞춤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조숙증?**

조기성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4학년 이전에 초경이 오는 경우에 다른 아이들보다 월동하게 키가 빨리 자라지만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앞당겨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역전되어 다른 아이들보다 작은 평균키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